막무가내 아파트 공사, 천년고찰 붕괴 위기

성남 봉국사 인근 공사로 문화재 대광명전 훼손 파문



아파트 공사현장서 불과 30m 진동으로 인한 균열 사찰 곳곳에 중단 요청에도 시공사 철거 강행





맨 위 사진 왼쪽이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 K아파트 공사현장, 가운데는 요사채, 사진 오른쪽이 경기도 유형문화재 101호인 대광명전이다. 사진 아래쪽은 사찰 곳곳의 훼손된 장면.

한 건설사의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천년고찰이 붕괴위험에 처했다.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은 6월 16일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대광명전을 비롯한 경내 주요 전각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성남 봉국사는 고려 현종 19년인 1028년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특히 이번 공사로 균열이 심하게 발생한 경기도 유형문화재 101호 대광명전은 성남이 단 두 개만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급 목조건축물이다. 그 가치로 인해 198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최근 봉국사는 대광명전의 보물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올해 3월 봉국사 인근 K아파트에 재건축 공사 허가가 나면서부터다. K아파트는 봉국사서 불과 30미터 떨어진 5층짜리 아파트로 봉국사와 담장을 맞대고 있다. 재건축조합 측은 2012년 재건축 인허가 후, 2016년인 올해 15층 아파트로 수정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은 "6월 4일 토요일 오전 8시경 굉음이 발생했다. 요사채를 비롯한 전각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에 불안을 느껴 살펴보니 대광명전을 비롯한 경내 전각 곳곳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봉국사 대광명전에는 철거 공사 이후 측면과 후면에 1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봉국사 측은 6월 8일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11일 시공사인 두산건설측 현장소장과 재건축조합장을 만나 문화재 훼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두산건설 측은 6월 15일 새벽 5시 크레인을 이용해 아파트 상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등 철거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혜일 스님은 "재건축에 민원을 제기한 인근 건물과 달리 조합원도 불자들이란 생각에 원만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문화재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시공과 15층 높이의 아파트 완공시 수행환경이 크게 침해되기에 이번 공사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스님은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번 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사실에 성남시청 문화관광부 문화재보존팀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6월 16일 균열부위를 조사한 조승연 문화재보존팀 학예연구사는 "균열을 확인했다. 균열이 커진다면 건물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파장이 확산되자 시공사인 두산건설 측은 16일부터 철거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시공사 측 현장소장은 "가처분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재 영향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학생포교, 대학생만의 문제 아냐"

성태용 교수, 대불련 활성화 세미나서



"대학생포교가 위기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각 대학교 불교학생회가 거의 고사상태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하지만 이것을 대학생불자만의 문제로 바라봐선 안 된다."

성태용 건국대 교수〈사진〉는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대불련 활성화 프로젝트 연구경과 보고회 및 세미나'에서 '대학생 불자들에 대한 불교교육의 방향'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대학생포교의 현실을 짚고, 미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가 주최한 자리에서 성 교수는 포교활성화를 위해 기성세대가 갖춰야할 자세를 설명했다.

성 교수는 "유치원, 사찰 어린이법회, 청소년법회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전후 맥락을 떼어내고 대학생포교만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대학생포교 현장의 문제들은 그 이전 단계부터 생긴 것이기에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연관성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생 불교교육은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어야 한다. 즉 한때의 열정이 아닌 삶에서 힘이 되는 종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비로자나 부처님 가피 모두에 충만하길"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건립 중인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고등학교에 모셔질 비로자나 부처님 점안식이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서 거행됐다. 자승 스님은 "크나큰 지혜와 광명으로 세상 모든 것을 참된 깨달음으로 이끄는 비로자나 부처님께 귀의해, 맑고 깨끗한 본성으로 모든 생명이 안락하길 바란다. 아프리카 청소년들도 그 뜻을 이어 근면성실하게 학업을 이어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실크로드 寶庫 '돈황' 모든 것을 담다

금강대 불문연 · 고려대 민문연, 〈돈황학 대사전〉 발간

"돈황은 중국에 있지만 돈황학은 세계에 있다.(敦煌在中國, 敦煌學在世界)"

중국의 문화사 연구의 대가 지센린(季羨林)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돈황은 중국에 있지만 역사 · 문화적 연구 가치는 세계적이라는 의미다.

'불교 문화의 보고'이자 '동서문화의 십자로(十字路)'였던 돈황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돈황학 대사전〉의 한국어 번역판이 발간됐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원장 조성택)은 인문한국(HK) 공동 사업의 결과물인 〈돈황학 대사전〉 한국어판을 내놨다.

2012년 공동 번역을 합의한 두 기관은 그해 8월에 정식 협정을 체결한 후 약 3년 6개월 동안 번역과 교정을 진행했다. 번역은 철학, 역사, 종교, 문학, 미술, 건축 등 각 분야 전문 연구자 22여 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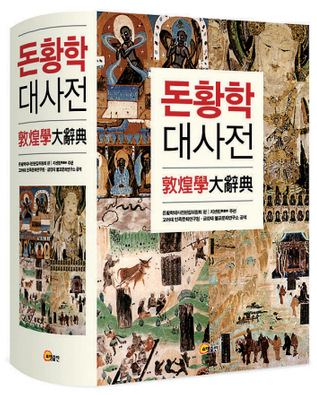
이번 번역의 특징 중 하나는 두 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진행됐다는 점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경전, 불교 벽화, 전적, 미술 등 불교 관련 분야를 맡았으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역사, 어문학, 도상, 복식, 관련 저작, 연구자 등의 분야를 번역했다.

이에 대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240만 漢字 · 6900여 표제어 사용 돈황학 'A to Z' 담아낸 대사전 中 13년 집필 거쳐 1998년 출간

"하나의 출판 성과를 위한 두 대학 HK 사업단의 공동 연구 협의와 사업 진행은 이전에는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이라면서 "이 같은 과정은 향후 연구지원 사업의 공동 수행에 있어서 좋은 선례와 경험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돈황학 대사전〉은 중국돈황투르판학회, 돈황연구원, 상해사서출판사의 합작으로 13년에 걸친 자료수집과 집필을 거쳐 1998년에 출판됐다. 이 작업에는 원로부터 중견, 청년학자까지 중국 · 대만 · 러시아 등 돈황학 연구자 120여 명이 참여했다. 당시 집필에 참여한 신진학자 롱신장(榮新江), 왕산칭(王三慶), 정아차이(鄭阿財) 등은 중국과 대만의 돈황학을 이끌고 있다.



〈돈황학 대사전〉은 사실상 돈황학 연구 성과를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240만자의 한자가 사용됐고, 표제어만 6925개에 달한다. 표제어를 살펴보면 석굴 · 설법도 · 경변도 · 불교 전적 · 사경 등 불교 관련 분야부터 정치 · 법률 · 경제 · 복식 · 음악 · 천문학 · 민속 · 종교(도교, 경교, 마니교 등)까지 모든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있다.

또한, 채색 그림 123폭과 텍스트에 딸린 삽도 626폭 등 수많은 사진과 그림 자료들이 첨부돼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벽화나 유물의 모든 부분을 세밀히 답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높은 연구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돈황학 대사전〉 한국어판 발간 의미에 최은영 금강대 교수는 "7000개에 가까운 표제어의 분류 항목에서 보이듯이 〈돈황학대사전〉은 불교를 중심으로 당시 역사 · 철학 · 예술 · 어문학 등 모든 학문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면서 "20여 명의 번역자와 두 대학 사업단이 함께 하는 작업이라 통일안을 마련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여러 난관들이 있었다, 하지만, 향후 돈황학과 관련학문 분야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학술서를 세상에 내놓았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무용 발전, '글로벌 브랜드화' 필요"

법현 스님, 14일 불교무용대전 세미나서 주장

한국불교 무용의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과 글로벌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법현 스님은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열린 불교무용대전 기념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불교 무용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법현 스님은 불교 전통 무용의 전승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짚었다.

스님에 따르면 사찰에서 진행되는 재의식 사용되는 작법무는 나비춤 18가지, 바라춤 7가지, 법주춤, 차주춤 등이다. 이들 의식무용은 범패와 장엄등 음악, 무용, 미술 등 복합적 요소를 내포하며 전승된다.

법현 스님은 "불교무용은 전통적 전승과 창작 및 문화 콘텐츠 개발로 범주가 확대되고 있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이론 정립과 세계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결 과제로는 △고정 프로그램화 △불교무용 사학기관 및 불교무용학과 설립 △유능한 전승자 육성 △국내외 적극적 마케팅 등을 꼽았다. **신성민 기자**

제1차 평온 공개강좌



이 세상에서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이 시대의 현성공안 만을
선정하여 라이브로 공개강좌하다

암(癌)은 깨달음과 무슨 관계인가?

• 제1차 공개강좌 일시 : 2016년 6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5시(2시간)
• 공 개 강 좌 장 소 : 화엄경 강원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0명 제한, 참가비 무료
(예약 접수하신 분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신청 및 문의 : 1899-9532

평온센터 부설
화엄경 강원
방장 진귀

